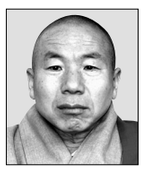
일 주 문



해인사 겨울수련회

향적 합천 해인사 주지 스님은 1월 6~8일 경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36회 법보종찰 해인사 겨울수련회'를 실시한다.



성탄절 템플스테이

정념 평창 월정사 주지 스님은 12월 24~25일 경내서 성탄절 특별 템플스테이 '나홀로 성탄절에'를 개최했다.



나마스떼코리아 이사장

상덕 서울 옥수복지관장 스님은 12월 16일 서울 성북동작은갤러리서 나마스떼코리아 제3대 이사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대불련동문회 송년법회

백효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장은 12월 25일 서울 공군회관서 '지나온 50년, 열어갈 50년'을 주제로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22년 모은 헌혈증, 난치병 환자에

생명나눔, 동국대일산병원에 헌혈증 5,000장

22년간 모은 헌혈증 5,000장이 저소득 · 난치병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된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는 12월 20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원장 오민구) 4층 제2회의실서 1994년 법인 설립부터 모은 헌혈증 5,000매를 기증했다.〈사진〉 기증된 헌혈증서는 동국대일산병원서 백혈병 · 소아암 · 희귀 난치병 환자 및 저소득 환자들의 치료에 쓰인다.

생명나눔 이사장 일면 스님은 "헌혈증 기부는 생명나눔 회원들과 동대부고 · 광동중 · 고등학교 학생 및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가능했다"며 "헌혈은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리려는 절박한 노력이다. 앞으로도 환자들의 쾌유를 응원하며 헌혈 캠페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태석기 의료원장은 "중환자 수술에 혈액은 필수적이다. 생각보다 더 많은 양이 필요하다"며 "이번 헌혈증 기부로 말할 수 없는 도움을 받았다. 특히 저소득 환자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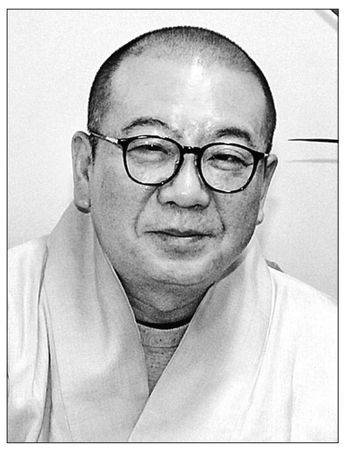
한편 생명나눔은 지난 9월 12일 동국대일산병원에 환자 리프트와 전동침대 구입에 필요한 5,000만원을 기증하는 등 꾸준히 나눔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승희 기자

"복지관 직영해 모범모델 발굴"

Interview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신임 상임이사 함결 스님



6개 분야 직영시설 확보해
빈약한 복지분야 보완 계획
아동 · 여성학대 대책 찾는다

"올해부터 각 분야별 복지관을 직접 운영해 모범 복지관 모델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여태까지 위탁 형식 운영이 많았지만 직영 복지관을 늘리게 되면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는 데 효율적입니다. 우리사회 어두운 곳서 연꽃처럼 정화 기능을 펼치는 불교복지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수개월 간 공석 끝에 12월 15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 이하 조계종복지재단) 신임 상임이사로 취임한 함결 스님〈사진〉은 19일 본지 인터뷰서 적극적인 재단 활동을 예고했다. 우선 상대적으로 노인복지에 집중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직영 복지관을 운영, 6개 분야마다 모범 복지 모델을 발굴하는 데 집중한다.

"노인복지관 · 보육시설 · 종합사회복지관 · 여성기관 · 장애인복지관 · 자활센터 등 6개 분야 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과정서 복지 모범 사례를 찾아내고 이를 불교 전반에 확산시키는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함결 스님은 복지관 표준화가 특히 빈약했던 아동 · 여성 복지정책을 보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관 모범 모델이 안정화돼 운영 노하우가 쌓이면 나아가 아동 · 여성학대 예방책을 도출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례 개발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보완해 나간다면 좀 더 완전한 아동 · 여성학대 예방책이 나올 겁니다."

또한 스님은 개별 사찰마다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자비나눔 행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하며, 궁극적으로는 신도들의 신행생활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개별 사찰 역량은 조계종단과 조계종복지재단 지원 여부에 달렸다"며 체계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자비나눔 행사에 모여 무주상보시를 펼치는 신도들을 지속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구심체가 사찰이 돼야지요. 이를 위해 조계종단과 조계종복지재단은 사찰이 신도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지속적인 보시행 · 신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교육자료를 만들고 배포해야 합니다. 우리 스님들도 금액 보시에 집중했던 점을 반성하고, 이제부터 신도들이 지속적으로 보시행을 펼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해 이들의 무주상보시를 장려하는 길로 들어서야 할 때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을 '복지의 꽃'이라 표현한 함결 스님은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비현장서 활약하는 신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생활밀착형 봉사가 성불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불자들은 봉사점수를 따기 위해 봉사에 나서지 않습니다. 오직 자등명법등명(自燈明法燈明) 정신으로 소외된 이웃 곁을 지킬 뿐입니다. 이를 잘 알기 때문에 조계종복지재단은 불자들을 위해 '생활보시'를 비전으로 제시합니다. 매 끼니 챙겨먹듯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스며든 보시행 전통이 정착되면 신도들도 스스로 불성을 깨우치고 성취감을 느끼는 순간이 올 겁니다."

한편 상임이사 함결 스님은 1985년 해인사에서 성법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1년 사미계 · 1995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광주 덕림사 주지, 제주 보현사 주지, 호계원 사무처장, 중앙승가대 산학협력단장을 역임했다. 제16대 중앙종회의원으로 제주요양원장과 천축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이승희 기자

"종교인 세속화 바로잡기 주력"

(사)부산불교지도자포럼 박영근 신임회장



"10년간 축적해온 불교 지성의 모든 역량을 집결해 이 시대 과제인 종교 세속화를 바로잡는 정법당간을 세우고자 합니다. 아울러 회원들의 불심에 대한 자질과 불법(佛法)을 비롯한 종교 덕목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 변화하는 포럼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사)부산불교지도자포럼이 12월 22일 부산롯데호텔 41층 에메랄드룸에서 '창립 제10주년 기념 및 회장 이 ·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영근 신임회장〈사진〉은 불교 지성의 결집체인 부산지도자포럼의 역할을 이와 같이 밝히고 회원들의 동참을 권유했다.

이어 박 회장은 "앞으로 부산불교 중흥을 위해 내실 있는 불심으로 접근하고 한다. 회원 상호간의 신뢰와 배려, 유대와 소통을 통해 화합하고 다시 10년을 시작하고자 한다"며 "회원의 기본 의무는 참석이다. 이름만 걸쳐놓은 회원에서 함께 동참하고 화합과 소통하는 회원으로 거듭나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구성원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경제뿐 아니라 학문 분야, 사회복지까지 아우르는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배우고 활동하는 불교기관으로 토대를 굳건히 하겠다"고 전했다.

(사)부산불교지도자포럼은 2006년 학술문화 교류, 불교지도자 육성, 국제 교류, 사회복지 및 봉사사업 지원 육성 등 부산불교는 물론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한 연구 활동 및 지원을 펼쳐나가기 위해 창립됐다. 창립법회를 시작으로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사랑의 이불 나누기 및 이웃돕기 봉사 활동도 진행해왔으며, 학술적 연구와 아울러 사회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한편 행사에는 부산불교연합회장 경선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무원 스님, 동명불원 화랑 스님, 박수관 前회장을 비롯해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동국대 불교학과 송년의밤 성료

12월 15일, 동문 90여 명 동참



동국대 불교학과 동문들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학과 창설 110주년 동문 송년의 밤'이 12월 15일 서울 충무로 대림정에서 열렸다. 이날 동문회에는 90여 명이 참여했으며, 홍영춘 전 SK에너지 사장과 김형중 동대부여중 교장에게 '2016 명예로운 동문상'이 수여됐다. 또 김용표 동문회장이 만장일치로 재임 가결됐다.

노덕현 기자

대한불교광명종, 자비의 쌀 전달

김천 봉산면에 백미 2,000kg



광명종 총무원장 현지 스님(김천 미타사 주지)은 12월 19일 김천 봉산면주민센터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백미 2,000kg(100포)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종정 불인 스님, 종주 광덕 스님, 총무원장 현진 스님과 진경, 진연, 진우 스님을 비롯한 종도스님들과 불자 조수만 봉산면 부면장 등이 참석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동짓날 출동한 '아이연탄맨'

아름다운동행, 구룡마을서 연탄 2만장 나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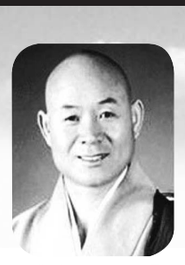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12월 21일 서울 구룡마을서 제3회 '이웃의 따뜻함을 전하는 슈퍼영웅 아이연탄맨, 2016 연탄나눔'을 진행했다. 이날 아름다운동행은 지난 10월부터 모금으로 구입한 연탄 2만1600장 중 4000장을 구룡마을 20가구에 우선 배분했다. 이후 한 가구당 200장씩 총 108가구에 연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승희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6년 12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